

패시브 Comment



고경범

02 3770 3625
gyeongbeom.ko@yuantakorea.com

■ 하반기 KOSPI200 정기변경 유동비율 변경 예상

- 하반기 KOSPI200 지수 정기변경 리밸런싱은 12/11(목)에 진행. 11/18일 이수페타시스, 한화엔진, 산일전기, LG씨엔에스, 파라다이스의 편입을 포함, 각각 7종목씩 편출입이 발표.
- Enhanced 패시브 추종자금의 선반영을 감안하면, 현 상황에서는 기존 종목 편입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비율 변경 발표와 반영 이슈에 주목할 시점.
- LG에너지솔루션은 EB 교환 청구 매도로 대주주 지분율이 감소, 한화오션은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의 지분 매도로 유동비율이 상승 예정. HD현대마린솔루션도 KKR(Global Vessel Fund)의 2회에 걸친 블록딜이 반영되면서 상승 예정.
- 카카오페이는 특수관계인 Alipay 싱가포르 법인 지분의 EB 발행 과정에서, 국내외 PBS에 지분을 양도하면서 감소. 동 지분 양도는 EB 보유자의 헤지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PBS의 대차계약으로, 전일 상환된 물량도 존재. 거래소 관점에서는 명목 상 지분율을 스크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 전망에서는 유동비율 상승으로 추정. 당사 패시브의 판단으로는 실질적인 EB 전환 물량의 매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.
- 지수 추종자금은 추종 ETF AUM 29.6조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. 올해 KOSPI200 지수의 랠리로 상반기 정기변경 당시 19.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, Enhanced 패시브 추종자금의 리밸런싱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.

[표 1] KOSPI200 유동비율 변경 예상

(단위: 억원, %)

Code	종목	산업군	평균 거래대금	시가총액	유동비율 증감	리밸런싱 수요	거래대금 대비	시가총액 대비	1M 수익률	3M 수익률
A373220	LG 에너지솔루션	산업재	1,540	971,100	6	887	0.58	0.09	-12.3	18.6
A042660	한화오션	산업재	2,349	325,105	6	284	0.12	0.09	-22.9	-13.9
A443060	HD 현대마린솔루션	산업재	462	81,455	16	202	0.44	0.25	-24.4	-12.0
A377300	카카오페이	금융/부동산	220	65,543	14	141	0.64	0.22	-7.3	-16.1
A006040	동원산업	필수소비재	31	19,580	12	36	1.19	0.19	-8.5	6.0
A361610	SK 아이이테크놀로지	산업재	53	24,168	10	36	0.68	0.15	-3.7	9.2
A036460	한국가스공사	유틸리티	96	38,218	5	28	0.29	0.07	-0.7	5.3
A300720	한일시멘트	소재	13	12,981	6	12	0.93	0.09	0.0	-7.8
A280360	롯데웰푸드	필수소비재	25	11,259	6	10	0.41	0.09	6.1	5.3
A069960	현대백화점	자유소비재	124	22,289	-7	-27	-0.22	-0.12	21.9	40.9
A012450	한화에어로스페이스	산업재	1,850	424,882	-5	-384	-0.21	-0.09	-15.8	-11.7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(작성자: 고경범).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